

#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 마련·시행

### 농진청, 한시적 규제 유예 5건 등 총 10개 과제 포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악습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연구개발 보급·확산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아울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생활 속 규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 발굴된 과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추진단의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고,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은 소관 부처에 검토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농업인·농산업체가 안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경제가 원활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좌)하림은 하림 본사에서 논산 육군훈련소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군 장병들 위해 삼계탕 기탁

### 하림-육군훈련소, 민·군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합식품회사(주)하림은 최근, 하림 본사에서 논산 육군훈련소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호석(주)하림 대표이사와 육군훈련소 최장식 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안보 공감대 확산과 장병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정립, 민·군 유대강화 등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육군훈련소는 하림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부대 건강 변화된 병영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하림은 장병들의 건강한 식문화 선도를 위한 영양 교육, 식품위생, 품질관리 지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원 △하림 공장 견학 참여 등이다.

특히 하림은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식품산업의 이해를 위해 하림 공장 투어 프로그램인 HCR Tour에 장병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닭고기를 생산하는 최첨단 도계·가공시스템과 닭고기를 주원료로 만들어지는 건 강하고 차별화된 제품들의 생산과정을 직접 둘러보고, 맛보고, 체험해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삼계탕 11,000봉(1억 원 상당)을 전달했다."

/역산=이재춘 기자

## 전북환경청,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 전북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83곳 대상



한국전력 김제전력지사는 지난달 29일 내장산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건조기 대비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4월부터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83곳을 대상으로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이며, 415종의 화학물질을 기준 수량 이상 취급하면서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s://icis.me.gov.kr>)에 접속하여 2023년 한 해 동안의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되어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2023년도 배출량 조사 결과, 전북 내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1,647톤으로 전년 대비 12.1%(178톤) 증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9종의 지정된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

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연차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2023년까지 조사결과 도내에 15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관리중이다.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량 자료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1차 검증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최종검증 후 12월 말에 조사 결과가 확정되며,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https://icis.me.gov.kr/prt/main.do>)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조경철 화학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이행하여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한국전력 김제지사, 봄철 산불예방 홍보활동 시행

한국전력 김제전력지사(지사장 김운섭)는 지난달 29일 내장산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건조기 대비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산불예방 홍보활동에서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 발생 사례 및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에 대한 안내와 함께 홍보용품을 배부했으며 캠페인 후에는 주차장과 등산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전 김제전력지사 김운섭 지사장은 지속적인 산불예방 홍보 등을 통해 산불로 인한 송전설비 고장을 방지하고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무고장·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전 김제전력지사는 시기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송전선로 고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청소년 행복채움 금융교실 운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소재한 서천초등학교에서 전교생 348명에 대하여 행복채움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소재한 서천초등학교에서 전교생 348명에 대하여 행복채움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NH농협은행은 '행복채움 금융교실' 운영을 통해 초·중·고·대학생과 다문화가정 및 금융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금융 기초상식, 제테크 합리적인 소비생활, 은행원 직무 체험 등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돈에 대한

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최근 3년간 442회에 걸쳐 1만1,962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교육 대상 인원을 6,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정환 본부장은 "올 한해 '행복채움 금융교실' 확대 운영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과 취약계층의 금융기초 지식과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청소년 행복채움 금융교실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youthdu.nonghyup.com> 와 현장지원단(063-240-3237)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진다.

/김옥기 기자

## 남원 춘향골농협, 영농자재센터 준공식 개최



판매액 200백만의 농자재를 공급한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은 지난달 28일 춘향골농협 통합지원센터 부지에서 영농자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서는 금지농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김영규 춘향골농협 조합장 및 임직원과 오영석 남원시시장 및 춘향골농협 관내 5개면 기관장, 사회단체장, 조합원 등 300여명의 참여했다.

영농자재센터는 판매장 385제곱미터, 농약판매장 100제곱미터와 부속창고로 350제곱미터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8억을 투자하여 1,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했다.

조합은 준공식에 앞서 진행된 2주일간(2월 19일~3월 13일)의 농약·농기계 등 35개 품목을 최대 40%에서 최소 5%로 영농자재센터 준공 할인행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수량 23천개와

판매액 200백만의 농자재를 공급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영규 조합장은 "우리 지역은 원예 시설과 과수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일반작물 및 농약 등 소요되는 농자재 구입요청이 많았으나, 협소한 시설로 인해 요청한 농자재를 구입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자재센터 준공으로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